2015학년도 인하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인문논술

■ 문항 1 [70점]

[문항 1 - 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 - 나] 대학 지원자로서 <다음>의 두 유형 중 어느 유형의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 다 음 >

특성화형	균형화형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특성화되어 전공 분야에서의 수준 높은 학습이 가능한 대학	대학 내의 전 분야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분야의 전인적인 학습이 가능한 대학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가)~(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제시문 두 개 이상을 활용할 것.
3.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제시문 >

(가) 학생은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온다.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할 과제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강의나 실습시간 그리고 학업과정의 계획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대학이라는 세계에서 강의든지 실습이든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공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준비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화 및 선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통념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에서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각 분야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과 가치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사회화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대학에 거는 기대는 단순한 직업교육 그 이상의 것이다. 대학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다. 특히 인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며 그 앎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알고자 하는 욕구는 관찰을 통해서, 체계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화에 대한 훈련으로서 자기비판을 통해서 실현된다.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의미와 방법은 '우니베르지타스(Universitas: 교사와 학생을 의미, 후에 우주라는 의미로 변형)'라는 대학의 명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우주이다. 따라서 대학이 전문학교의 집합소가 되면 대학의 의미를 상실한다. 학문의 생명력은 전체와의 관계에 근거한다. 모든 개별적 학문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특수 학문의 전체성과 지식의 전체성에 대한 이념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렇게 전체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철학적 사고'에 바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철학적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사전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으며, 수집에만 몰두하거나 기술적이지만은 않으며, 단편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념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직업을 위한 전문교육에도 포함한다. 특별한 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미 알려진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사고를 위한 능력을 단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적이고 학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대학은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단지 기초만을 마련해줄 뿐이며, 그 다음은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전문성을 가르치는 학교임과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전수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전문적 교육과 진리탐구의 학문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교양과 진리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을 특정분야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하자는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발췌, 수정

(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지식과 학문의 융합이 존재한다. 심리학과 과학기술사 연구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을 섞어 하나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인간 사고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교육이나 연구와 관련해서 융합을 논의할 때는 아직 여러 난점이 존재한다. 대학은 여러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적인 고급인력이 집결되어 있지만, 기존의 학문영역과 방법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융합을 실현하기에 이상적인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래드랩의 경우는 대학이 융합연구를 추구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이다.

래드랩(Rad-Lab, Radiation Laboratory)은 미국국방연구위원회 소속으로 MIT에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레이더 개발을 담당했다. 이곳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쓰였던 레이더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 그 중에는 지상에서 비행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배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레이더처럼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레이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래드랩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화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 심지어는 음악가까지 고용되어 있었다. 음악가를 고용한 이유는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음악가의 전문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 중에는 악기를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래드랩의 연구원만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였다. 래드랩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특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연구소의 성공요인으로 물리학자와 전자공학자들이 성공적으로 협력하게 한 점을 들었다.

레이더는 발진기, 안테나, 수신기, 신호표시기, 그리고 파동을 변환해 주는 변조기 등과 같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진기에서 전파를 발생해서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이것이 금속체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고, 이를 수신기에서 받아서 시그널을 판독한 뒤에 신호표시기로 표현하는 식이었다. 래드랩은 이러한 핵심 부품들을 연구하기 위해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 부품의 실험실에 함께 배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레이더는 바로 이 각각의 실험실에서 물리학자, 엔지니어, 화학자, 음악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한 결과였다. 이상의 다양한 지식의 융합의 결과물인 레이더의 발명에서 보여주듯이,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융합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다른 지식 영역과 대화하고 다른 지식을 끌어와서 융합하려는 노력은 한 분야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에 근거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고 사람들이 경고할 때 예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웃어넘겨 버린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은 강박적이거나 편집광적이거나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선택을 위해 일하고 헌신한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윔블던으로 돌아왔다. 25년 전 테니스계를 들썩이며 나타나 9번의 윔블던 단식 우승을 이룬 그녀였다. 나브라틸로바와 그녀의 복식 파트너는 세계 랭킹 6위였으며 윔블던에서 다시 우승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46세가 되어가는 나브라틸로바가 왜 아직도 피곤한 여행을 하고, 경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수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나브라틸로바는 말했다. “나는 단지 테니스 경기가 좋을 뿐이에요.” 결국 그녀는 윔블던에서 스무 번째 우승에 도전해 남녀혼합복식에서 승리하고 신기록을 세웠다.

한 가지에 헌신하는 것을 ‘눈가리개 쓰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싱글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싱글 마인드는 예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끌어올리거나 꿈을 실현할 때 요구되는 것에 집중하면 가족이나 공동

체에 소홀해질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싱글 마인드는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관심사들을 한데 묶고 그것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달걀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꿈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궁금해 한다.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퇴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음악에서의 성공도, 대학 졸업장도 모두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사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 무일푼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꿈을 추구하기도 전에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진정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실패하거나 파산하는 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예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아는 동시에 실패가 자신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파산은 세상의 끝이 아니며, 그들이 정말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여줄 또 한 번의 도전일 뿐이다. 초기의 IBM이나 코닥, 제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달걀을 새로운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이다.

(라) '두 문화(The Two Cultures)'라는 용어와 개념은 195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행한 스노우(C.P.Snow)의 '두 문화와 과학 혁명'이라는 강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인문학적 문화와 과학적 문화가 상호 소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하고, 이러한 대립과 단절이 양자 모두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쪽 극에는 문학적 지식인이 그리고 다른 한쪽 극에는 과학자, 특히 그 대표적 인물로 물리학자가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는 몰이해, 때로는 적의와 혐오로 틈이 크게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스노우 자신이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25세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아 핵물리학 분야를 연구한 과학자인 동시에 소설가와 평론가로 활약했으며, 이후에는 행정 관료와 사업체 대표로서의 길을 걷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경력은 그다지 이채로운 일이 아니었다. 파스칼이나 데카르트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경우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문의 분화 현상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특히 인문학과 과학 간의 간극은 현격하게 벌어졌다. 바로 이런 단절의 상황에서 스노우는 두 문화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그는 근대 이후의 전문화 교육에서 찾고 있다. 스노우는 가장 기초적인 문학 서적조차 읽지 않는 과학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나, 혹은 가장 초보적인 과학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문학 문화에 속한 사람들 모두 전문화 교육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교육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두 문화의 문제는 비단 인문학과 자연 과학, 이 두 문화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각 문화의 분과 학문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철학이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물학이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각 학문 분야가 고도의 분업화, 전문화에 도달한 데 기인한다. 이것은 근대의 요구에 부응한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의 학문과 문화를 두루 섭렵한 전인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르네상스적 지식인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상이한 문화를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통섭(consilience)적

이해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형은 여러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학문 세계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나아가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가치들을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여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창출하는 인물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이다. 문제는 과연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만한 교육 체제를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에서 발췌, 수정

(마) 천연 소금과 인공의 화학 소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알다시피 소금은 염화나트륨 성분이라 진공 증발 가마에 넣어 인공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염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시간이나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순전히 화학 작용만으로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노이즈,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연 섞여 있지 않은 고순도의 환상적인 소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화학 작용으로 만들어 낸 인공 소금을 먹어 보니 그 맛과 질이 천연 소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공 소금은 맛이 직선적이며 침투력이 약해서 생선을 절일 때에도 겉만 짜고 몸에 간이 배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절일 때에도 발효가 잘되지 않지요. 소금의 결정 모양도 다릅니다. 진공 가마에서 나온 소금은 주사위 형인데 자연산 소금은 평평한 결정체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채소에 붙어 있기도 쉬웠던 것이지요.

간장 맛에도 미묘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인공 소금을 쓸 경우에는 모두가 똑같은 맛으로 획일적인 데 비해, 천연 소금은 결정형이 제멋대로라 그때마다 개성이 다른 오묘한 장맛이 난다는 겁니다. 인공 소금과는 달리 천연 소금은 유산균이나 효소처럼 살아 있는 것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지요.

인공 소금은 이를테면 순수한 물 성분만으로 된 증류수와도 닮은꼴입니다. 죽은 맛이지요. 반대로 천연 소금은 천연의 물처럼 살아 있습니다. 천연염에는 염화나트륨이 90퍼센트이고 나머지는 수분과 마그네슘, 칼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소금 성분 이외의 것, 이를테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불순물이 들어감으로써 제 맛을 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치. 여러분, 염화나트륨만으로는 진짜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새벽에 아름다운 노을이 생기는 것은 그 대기에 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을 잊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에서 발췌, 수정

■ 문항 2 [30점]

[논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밑줄 친 의견을 반박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100자, 30점)

< 다 음 >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문제이다. 특히 고령 인구는 낮은 사회 • 경제적 지위로 어려움을 겪으므로 증가하는 노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년을 연장하여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킨다"라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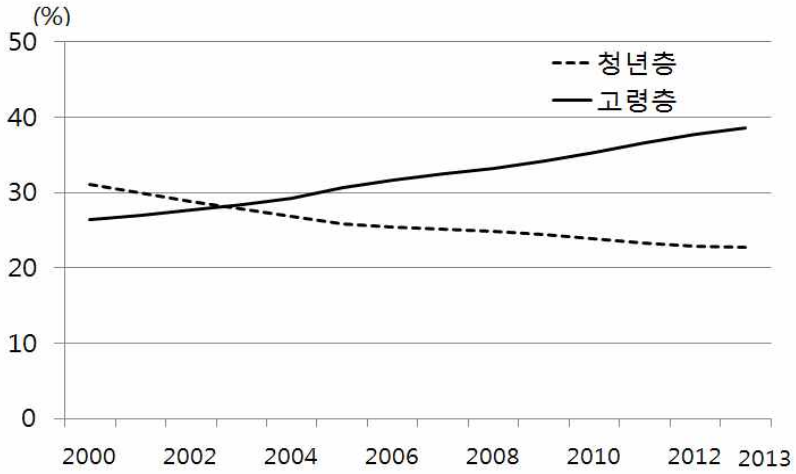
고등학교 『사회·문화』 발췌·수정

* 청년층: 15세 이상 29세 이하.
* 고령층: 50세 이상(준고령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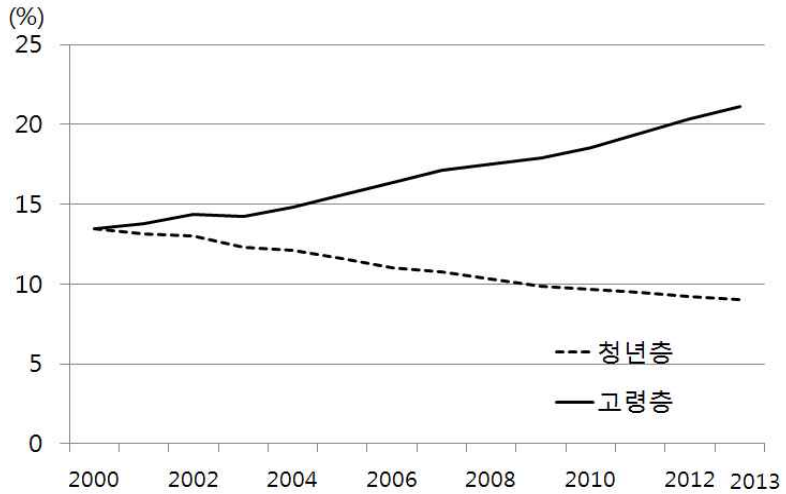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자료>

(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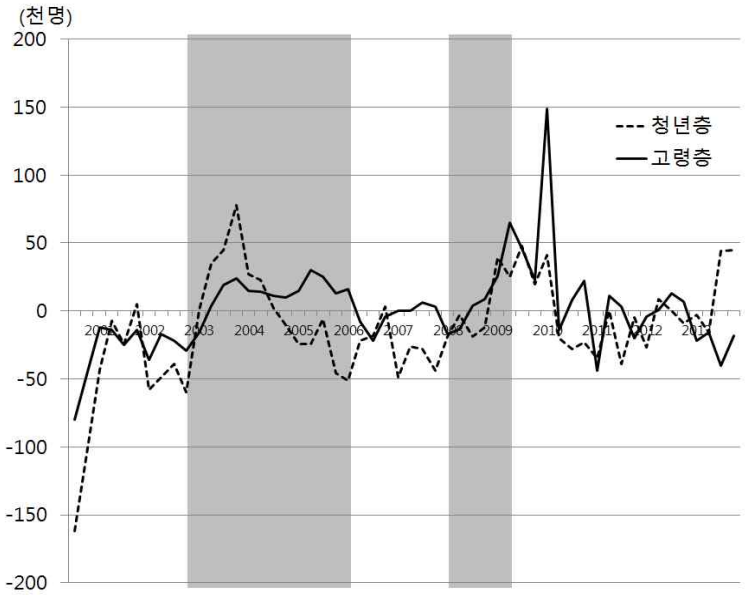


(나)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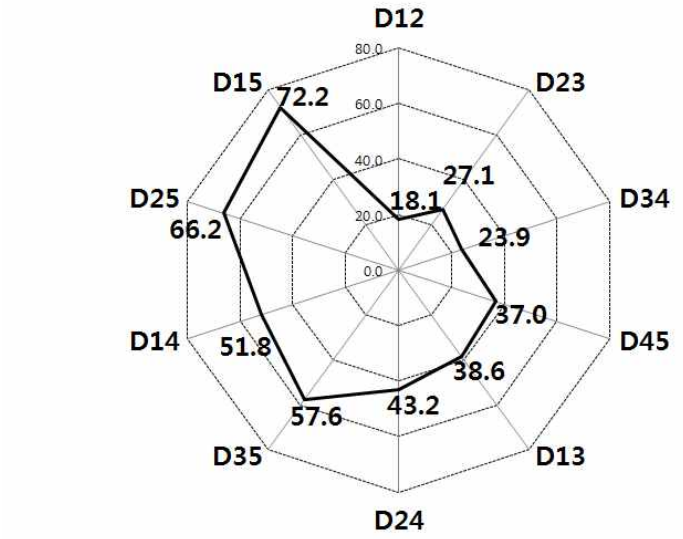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연령별 실업자 수의 변화



* 음영은 경기 침체기를 나타냄.

(라) 2009년 기준 세대 간 직종 격리 지수[1)]



1) 세대 간 직종 격리 지수: 취업하는 직업 분야가 세대 간에 서로 분리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 예를 들어, 이 수치가 0이면 두 세대 사이에 직종이 전혀 분리되지 않아 동일한 직업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100이면 직종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다른 직업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나타냄.

* 그림 바깥쪽의 D12, D23 등은 두 세대 간을 가리킴. 예를 들어, D12는 1번 세대와 2번 세대 간을 의미함.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음.
  1: 15~30세 미만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이상

* 그림 안쪽의 18.1, 27.1 등은 바깥쪽의 두 세대 간에 해당하는 직종 격리 지수를 보여줌. 예를 들어, D12에 해당하는 직종 격리 지수는 18.1임.

(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순채용 인원 변화

(단위: 명)

	연장 전	연장 후	증감
전체	3,394	3,246	-4.4%
공공기관	531	510	-4.0%
제조업	1,204	1,559	29.5%
비제조업	1,659	1,177	-29.1%

* 2012년 현재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94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바) 정년 연장 시 임금 피크제[2] 도입 여부에 따른 청년층 순채용 인원 변화

(단위: 명)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업		
	연장 전	연장 후	증감	연장 전	연장 후	증감
전체	383	487	27.2%	3,011	2,759	-8.4%
공공기관	158	68	-57.0%	373	442	18.5%
제조업	149	234	57.7%	1,055	1,325	25.6%
비제조업	77	185	140.3%	1,582	992	-37.3%

2) 임금 피크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증가시키다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해마다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등학교『사회』발췌.)

* 2012년 현재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94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015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모의 논술고사 인문논술

해설 및 예시 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이러한 독해와 분석 및 응용, 그리고 작문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이 문항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생활, 교과서 등을 통해 접하는 문제 중에서 대학 교육의 문제를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수험생들이 제시된 과제를 친숙하게 느끼는 동시에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 수험생들의 일상적 체험과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은연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채택하고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였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문항 1-가]의 예시답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은 <특성화형>과 <균형화형> 각각을 지지할 수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 사고의 핵심인 창의성이 지식과 학문의 융합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바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학자, 공학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특성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균형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한 가지에 몰두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하나로 묶고 그 하나에 매진할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일화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 글은 또 한 가지에 집중 투자했을 때의 위험성이라는 예상 가능한 반박에 대해 실패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는 점을 들어 재반박하고 있다. 이 글은 <특성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제시문 (라)는 '두 문화'라는 개념에 담긴 의미를 다루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문화'란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진 인문학과 과학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근대의 산물인 전문화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전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글은 역설한다. 이 글은 주로 <균형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천연 소금과 인공 소금을 비교하면서 순수한 성분만이 아니라 순수한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진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인재상에 적용한다면 순수하게 어느 한 분야에만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집중한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균형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우선 직업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전문화된 직업교육도 대학교육에 포함되지만 이 역시 지식과 학문의 전체성에 기반한 기초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전문화된 직업교육과 진리를 추구하는 교양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학을 교양교육 대학과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 대학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학과 학생들이 선택 상황에 놓여 있다. (300자)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특성화형>과 <균형화형>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유형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유형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둘 이상을 참고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특성화형>을 선택한 경우: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오늘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능을 교육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는 다양화, 전문화 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개인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의 교육과 학습에 있으므로 특성화형 대학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나브라틸로바가 46세의 나이에 윔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테니스 하나에 몰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래드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 몰두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에 이른 시기에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본연의 사명과 융합적 인물의 필요성 때문에 균형화형 대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이다. 비록 초기의 대학이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균형 잡힌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문의 다양성과 깊이의 정도가 낮았던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에 융합과 통섭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임을 감안하면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02자)

* <균형화형>을 선택한 경우: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대학 본연의 지위와 역할 때문이다. 애초에 대학은 인간의 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지식의 우주와 같은 공간이었다. 폭넓은 교양,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다면 참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비록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할지라도 이는 직장에서의 실무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 잡힌 지성인으로서 향후 어떠한 일이 맡겨지더라도 능동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균형화형 대학이 최선의 선택이다.

둘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분화, 전문화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결과 자신의 분야 이외의 분야는 전혀 모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인공소금이 짠맛을 낼 수는 있지만 절임이나 발효에는 천연 소금이 더 좋듯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더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융합형, 통섭형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해 이른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특성화형 대학이 좋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인 선택이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각 분야의 운명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정한 분야에만 몰입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분야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인적 학습이 가능한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하겠다. (800자)

※ 제시문에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특성화형> 선택의 논거**:

(가)

-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공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준비이다.
- 대학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화 및 선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요구된다.

(나)

- 다양한 지식의 융합의 결과물인 레이더의 발명에서 보여주듯이,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융합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다른 지식 영역과 대화하고 다른 지식을 끌어와서 융합하려는 노력은 한 분야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에 근거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

-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다.
-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다양한 관심사들을 한데 묶고 그것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초기의 IBM이나 코닥, 제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사람들은 달걀을 새로운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이다.

* **<균형화형> 선택의 논거**:

(가)

- 대학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다.
-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우주이다.
- 대학이 전문학교의 집합소가 되면 대학의 의미를 상실한다.
- 특별한 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미 알려진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사고를 위한 능력을 단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

- 두 문화 현상의 원인은 근대 이후의 전문화 교육에 있다.
- 우리는 여러 상이한 문화를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통섭(consilience)적 이해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여러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인물이다.

(마)

- 인공 소금은 맛이 직선적이며 침투력이 약해서 생선을 절일 때에도 겉만 짜고 몸에 간이 배지 않는다.

- 채소를 절일 때 인공 소금을 쓰면 발효가 잘되지 않는다.
- 천연 소금은 유산균이나 효소처럼 살아 있는 것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천연 소금으로 담근 장은 오묘한 맛이 난다.
- 염화나트륨만으로는 진짜 소금이 될 수 없고 불순물이 들어가야 소금의 제 맛이 난다.
- 새벽에 아름다운 노을이 생기는 것은 그 대기에 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4. 평가 기준

[문항 1 - 가]

1. **[기본 조건]**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학생들의 기대 -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전문적 직업교육의 장
■ 대학교육의 본질적 목적 - 전체성[통합성, 근원적 지적 욕구 실현]
■ 대학에서의 전문 교육 - 전체성[통합성, 기초 교육]에 기반해야 함
■ 현실적 문제 - 전문성과 통합성 동시 추구의 어려움에 따른 선택 상황

2. **[논리성]**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건]**
- ■ 제시문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지 말아야 함.
-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문항 1 - 나]

1. **[논리성]**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가능함.
- ■ 논거가 <다음>에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서술됨.
-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좋음.

2. **[기본 조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 문제의 논점(<다음> 속 ‘특성화형’과 ‘균형화형’의 의미)을 정확히 파악함.
-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 활용하여 첫 논거를 서술함.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제시문 (가)~(마)에서 또 다른 1개 이상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서술함.
-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 (반박과 재반박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3. **[형식 요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한쪽을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달지 않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5. 제시문 출전

(가):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교육 제도' 단원, p. 184)와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서 발췌, 수정.

(나): 관련 서적에서 발췌, 수정.

(다): 관련 서적에서 발췌, 수정.

(라):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지학사, '제재에 따른 글 읽기' 단원, pp. 215~216)에서 발췌, 수정.

(마):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지학사, '제재에 따른 글 읽기' 단원 중 이어령, 「젊음의 탄생」, pp.169~170)에서 발췌, 수정.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청년 세대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점검하고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서의 탐구활동을 인용·활용하였다.

2. 논제 및 자료 해설

논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세대 간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자료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료를 골라내야 한다. 다음으로 골라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 연관관계를 고려하며 주장에 대한 반박과 상생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자료 (가)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를 나타낸다. 자료에서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고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로 고령화 사회의 특징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주어진 논제의 <다음>에 나타난 밑줄 친 주장을 반박하거나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료 (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변화를 보여준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층의 실업이 중요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를 반박 근거나 상생 방안의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자료 (다)는 연령별 실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청년층의 실업자 수와 고령층의 실업자 수가 함께 감소했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청년층의 실업자 수와 고령층의 실업자 수가 함께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별 실업자 수 변화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변동 추이가 대부분의 시점에서 같은 방향에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료 (다)는 반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2005년과 2006년의 경우에서처럼 다소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령층의 실업률은 경기에 따라 같은 추세로(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진작을 통해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자료 (라)는 세대 간 서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대 간의 연령 차이가 클수록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료 (라)는 밑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15의 격리 지수는 72.2로 이는 청년층(15-29세)과 60대 이상 간 직종의 분리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2.2는 다른 세대들 간의 직종 격리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층 실업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다.

또 이 자료를 통해 중복되는 직무의 경우에는 직무 공유(또는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등)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청년층과 고령층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 (마)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순채용 인원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년 연장 후 청년층 순채용 인원이 전체 4.4% 감소했지만, 제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청년층 채용이 29.5%나 증가했다. 이 자료는 비록 전체 산업은 아니지만 제조업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는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반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자료는 분야별로 정년 연장에 따른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자료 (바)는 정년 연장 시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청년층 순채용 인원의 변화를 비교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 정년 연장 이후에 청년층의 순채용이 증가했다. 임금 피크제를 미도입한 기업들 중에서도 제조업과 공공기관 분야는 청년층의 순채용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자료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순채용에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임금 피크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반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상생 방안과 관련하여 이 자료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공공기관은 제외) 청년 채용을 늘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예시 답안

정년 연장이 곧 청년의 취업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다. 첫째, (다)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실업자 수 변화가 대개 같은 방향성을 갖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연령층의 취업은 대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라)를 보면 D15, D14의 격리 지수가 각각 72.2, 51.8로 다른 세대 간보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에 일자리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셋째, (마)에서 제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오히려 청년층 채용이 29.5%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정년 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감소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다. 넷째, (바)에서 보듯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청년층 채용이 비제조업은 다소, 제조업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상생방안으로는 우선 (다)를 참고하여 경기 진작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 (라)를 바탕으로 각 연령층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직종이 중복되는 분야는 직무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와 (바)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임금 피크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1자)

4. 평가 기준

1. **[핵심 내용]**
   - 반박의 근거로 자료 (다), (라), (마), (바)를 선택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다	- (일정시점(예: 2005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청년층과 고령층의 실업자 수 변화 추세를 보고 두 세대의 변화가 대체로 같은 방향성을 지님을 지적.
라	- D15(72.2%)나 다른 세대 간 자료를 인용하며 두 세대(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직종 분리 정도가 다른 세대 간 직종 분리 정도보다 월등히 높음을 제시.
마	- 제조업 분야 수치에 주목하여 정년 연장 후 제조업 분야에서는 청년 순채용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 지적.
바	-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고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순채용이 증가하는 업종(제조업, 비제조업)이 있음을 지적.

   - 상생 방안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
1	- 경기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절대적인 파이 키우기]	다
2	-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중복된 직종에서의 일자리 공유[직무 공유, 파이 나누기]	라
3	- 임금 피크제 도입(공공기관보다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	마, 바

2. **[논리성]**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를 설득력 있게 연결하며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3. **[기본 조건]**
   - 자료를 언급해야 하고 적합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준수해야 함.

4. **[형식 요건]**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또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

5. 자료 출전

<다음>: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사회 변동의 양상' 단원, p. 253, <사회·문화> (천재교육)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단원, p. 227에서 발췌, 수정.
기타 고령화 사회, 특히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룬 다음의 고교 교과서 내용을 참고함.
<사회·문화> (금성),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단원, p. 249.
<사회> (박병익 외, 천재교육), '미래 사회에의 대응' 단원, p. 185.
<사회> (비상교육), '미래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 단원, p. 20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가): 안주엽, 세대간 고용 대체 가능성 연구, 2011.
(나): 통계청, KOSIS.
(다): 통계청, KOSIS.
(라): 안주엽,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 연구, 2011.
(마):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연장 제도 연구, 2012.
(바):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연장 제도 연구, 2012. 임금 피크제에 관한 설명은 고등학교 <사회> (박병익 외, 천재교육), '미래 사회에의 대응' 단원, p. 185.에서 발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